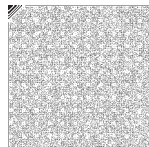




안현모 리디아 | 방송인



## 침묵 속에 만나는 하나님

초등학교 때 ‘우리 집 가훈 알아 오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매번 같은 문장을 적어 주셨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아버지 특유의 굵은 베이스톤 목소리로 짧은 설명도 곁들여 주셨지만, 어릴 때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침묵이 진짜로 금이라는 게 아니라, 황금처럼 좋은 것이라는 것까지만 알아 두었죠. 그런데 애써 기억하거나 실천하려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자라면서 은근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멋진 격언들을 접할수록, 왜 하필 그 한 문장이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을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의 의미가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직업상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방송국 기자였을 때도, 기자의 본질은 취재,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관찰과 청취가 우선이었습니다. 통역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하려는 원문을 머릿속에 똑바로 입력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저의 직업은 ‘듣기’가 중요한 셈입니다. 문제는, 잘 들으려면 말을 멈춰야 한다는 점이죠. 즉, (동시통역의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입을 닫아야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다른 수많은 미덕을 놔두고 ‘침묵’이란 두 글자를 강조하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된 건, 직업적인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수록, 제 몸 곁에 달린 귀만 열리는 게 아니라, 제 몸 안에 있는 마음의 귀도 열린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속에 침잠할 때 비로소 영성의 귀가 깨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깥귀가 아무리 다양한 소리와 정보를 매일 흡수한다 해도,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귀는 바깥귀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나의 깊은 자아가 속삭이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면 아버지께서는, 딸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침묵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랐었던 겁니다.

요즘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묵’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말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감히 말로써 어찌 손쓸 방법이 없는 전 세계적 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저 말없이 기도라는 침묵에 몸을 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요즘처럼 외출이 자제되고 사람과의 모임이 줄어든 시기일수록, 침묵 속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 보시면 어떨까요. 평상시 피로감으로 다가왔던 일상도, 미움으로 받아들였던 한마디도, 기도가 주는 금빛 온기 속에서 따뜻한 그리움으로 데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거리낌 없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도 그 온기가 남아있겠죠.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1 베드로 5:7

안녕하세요



김수영 이레네  
송파동성당